## 박상현의 '맛있는 이약기'



# '미식의 시대' 열어 줄 대통령을 기대하며

음식을 먹는 인간 행위의 발전 단계는 '악식의 시대-폭식의 시대-미식의 시대' 로 구분할 수 있다. 악식의 시대는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다. 이때는 무엇을 먹고 왜 먹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무엇이든 먹 음으로써 생존하는 것이 관건이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은 악식의 시대였다. 모든 문명의 우선적인 과제는 배고픔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다. 백성의 끼니를 살피고, 굶주리는 백성이 없도록 하는 것이 지도자의 가장 주된 역할이었다. 지금도 빈곤과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의국민은 여전히 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실 우리나라도 이 시기를 벗어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꿀꿀이죽'으로 대표되는 한국전쟁 당시나 직후가 그랬고, 60년대 말까지 지속되었던 '보릿고개' 또한 마찬가지였다. 주식인 쌀이 부족해 국가가 국민이 먹는 밥까지 간섭하고 규제했으며 외국에서 들여온 값싼 밀가루를 장려하던 것이 불과 40여 년 전이다.

사정이 좀 나아져 국가적 차원에서 식 량의 절대량 부족이 해소되면 폭식의 시 대로 접어든다. 이때가 되면 다양한 현상 이 벌어진다. 우선 배고팠던 시절을 보상 받기 위해 맹렬하게 먹는다. 음식은 배고 픔이라는 본능을 넘어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대상으로 바뀐다. 때문에 무엇을 먹 느냐가 계급과 계층을 나누는 수단이 되 기도 한다.

대량생산 대량소비가 정착되면서 식품 산업과 외식산업이 급속히 성장한다. 바 야흐로 먹거리의 주도권이 국가에서 자 본으로 넘어간다. 소비자의 주권은 자본 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행사된다. 소비자는 그것이 온전한 자기 선택이라 믿을 따름이다. 염치없는 자본 은 시스템과 미디어를 활용해 더 많이 먹 도록 부추긴다. 덕분에 폭식과 괴식이 난 무한다. 먹지 못해 생겼던 질병 대신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질병이 사회문제로 대두된다. 비만은 폭식의 시대를 상징하 는 질병이다. 한국인은 지금 전형적인 폭 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폭식의 시대가 고도화 되면 사회 내부에서 분화가 일어난다. 음식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부류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나는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가? 내가 먹는 음식은 어떤 식재료로 만들어졌고 어떤 환경에서 획득한 것인가? 내가 이 음식을 통해 얻는 만족은 무엇인가? 심지어 내가 먹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등의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기준으로 음식을 선택한다.

미식의 시대에 음식은 생존과 욕망의 수 단을 넘어 개인의 정체성과 이데올로기를 상징하는 수단으로 그 역할이 확장된다. 19세기 독일의 과학자 칼 포크트와 철학자루드비히 포이어바흐는 이미 150여 년 전에 이를 예견했다. 포이어바흐는 "인간이란 그가 먹는 것이다"라는 명제를, 포크트는 "인간이란 그가 먹는 대로 된다"는 명제를 각각 남겼다. 비록 유물론적 관점이긴 하지만 결국 먹는 것이 인간의 육체와정신을 지배한다고 믿었다. 이 명제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며, 좀 더 확장시키면한 사회의 수준역시 그 사회가 소비하는음식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수 있다.

미식의 시대는 이처럼 사회 전체의 변화가 아닌 개개인의 각성으로부터 출발한다. 공간이 삶의 질과 형태를 규정하듯 먹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보편화 된다. 얼마나 잘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가 가치 있게 먹느냐는 문제로 패러다임이 바뀐다. 미식의 시대에 먹거리의 주도권은 국가나 자본이 아닌 개인에게로 넘어온다. 사회의 변화가 개인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 모여 사회의 변화를 견인한다.

따라서 미식의 시대에 개인은 수동적 인 소비자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소 비자로 바뀐다. 미식을 고급스럽고 값비 싼 음식을 먹는 행위로 단순화시키는 것 은 근대적인 관점이다. 음식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올바름과 정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현대적 관점에서 미식의 의미다. 그래서 미식을 추구하는 개인은 자신이 먹는 음식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식재료가 재배되거나 획득되는 과정이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지 살피고, 가공 및 유통 과정이 위생적이고 합리적인지를 따진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 있다.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의 생산·가공·유통의 일련의 과정은 법률과 정책의 통제를 받는다. 그런데 산업화시대를 거치는 동안 먹거리 관련 법률과 정책은 합리성을 명분으로 철저히 자본의 편에서 제정되고 집행되어 왔다. 덕분에 한국의 식품기업은비약적으로 성장했다. 미식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기업 중심의 먹거리 정책을소비자 중심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 이것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확보하기위한소비자의 당연한권리다.

권리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요구하고 행동함으로써 쟁취하는 것이다. 결국 먹는 문제 역시 정치의 문제로 귀결 된다. 부디 당신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 거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후보를 찾아 소 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하시길 당부드 린다. 투표 역시 미식의 시대를 살아 갈 각성된 개인의 중요한 역할이다.

〈맛칼럼니스트〉

## 和多处

# 핍박받을지 모른다고?



조 경 완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나만 그렇게 느꼈을까? 대한민국의 수도에 볼 일 있어 KTX를 타면 호남선 승객들은 용산역에 내린다. 여의도나 강남쪽이 목적지면 상관없지만 광화문이나종로통에 가려면 한참을 북쪽으로 더 이동해야 한다. 가다 보면 서울역과 남대문이 보인다. 서울역은 경부선 전용역이다. 호남선 승객들은 사대문 밖 저만치에서 내리라는 것으로 여겨진다.

과민반응일 수 있다. 그러나 나 같은 불 만들이 접수됐는지 작년 12월부터 코레 일은 서울역에서도 호남선 전라선 상하 행 각 12편씩을 끼워 넣었다. 그래도 여전 히 호남선 전용역은 용산역이다.

우리처럼 조밀한 국토에다 교통 통신이 고도화된 국가에서 특정 지역 거주자 또는 출신자들이 손해나 차별을 받고 산다는 건 못 참을 일이다. 그러나 분명한 유리 도로시 <u>'</u>프리고

건 호남이 GRDP, 고위관료와 법관, 검경 수뇌, 군 장성, 대기업과 공기업 임원, 심지어 명문대 입학생 수에서까지 현저히 열위에 있다는 사실이다. 부와 엘리트의 편중이다.

수반을 선거로 뽑는 국가에서 당선자가 각 지역에서의 득표율을 정책에 반영한다면 치사한 노릇이다. 그러나 어쩔 것인가. 지난 경험으로 호남은 더럽게도 차별 받았다. 국부(國富)는 한정되어 있고엘리트의 감투 또한 치열한 경쟁 대상이다. 감정을 가진 인간인 대통령과 그 주변세력이 지지기반을 염두에 두고 정책 수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아무도 제지한 수 없다

호남 사람이 그나마 기를 펴고 산 건 DJ정부 중반 이후 잠깐이다. 초반엔 IMF사태에서 헤어나느라 정신없었다. 더욱이 영호남 화합을 한다며 영남 총리를 앉히고 배타적 호남 특혜에는 극도로 조심했던 DJ다. 그래도 관가에선 부랴부랴 인사기록카드들을 뒤져 호남 출신을 찾아 등용했고 사기업들에서도 호남인의약진이 두드러졌다. 호남 현지에선? 여수에 엑스포 시설공사가 뚝딱거렸으며 목포 인근에 전남도청이 옮겨가느라 부산했다. 무엇보다 좋은 대통령 당선시켰다는 장삼이사(張三李四)의 자부심이 저자

에 흘렀다.

거기까지였다. '광주의 기적'으로 당선 됐다는 노무현 대통령은 광주에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첫 삽을 뜨게 한 것 외엔 호남 사람 속 뒤집는 말들만 하다 임기를 마쳤다.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지나오는 동안 호남의 처 지는 참으로 암울했다. 단군 이래 최대 문 화사업이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은 지지부진했고 내각은 물론이요 국가를 이끌어가는 모든 분야에서 호남 출신들은 희귀동물이 되어갔다. 표를 안 줬기 때문이다. 선거란 이런 것인가.

백보를 양보하여, 박정희 정권 시절 대미 대일 외교와 수출이 국가의 생명줄일 때 경부 축의 개발이 우선이었다고 인정하자. 포항과 울산 구미에 퍼부은 국부가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위해 불가피했다고하자. 그러면 노태우 정권 이후 급증한 대중국 무역을 위해선 호남 축으로의투자 전략 시프트가 이뤄져야 맞는 것 아닌가. 평택을 포함하여 새만금, 목포, 광양에 국부가 선택적으로 집중되어야 맞는것 아닌가. 황해권 시대를 연다는 무안공항의 저 을씨년스러움, 자동차 100만대기지라는 빛고을산단의 저 시뻘건 황토, 아시아 문화 허브라는 광주아시아전당의 저 텅 빈 객석은 무엇인가.

닷새 후면 우리는 또 대통령을 뽑는다. 선거철이면 온갖 달콤한 말들이 난무하 지만 어찌된 건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선 어느 후보도 호남인들의 귀가 번쩍 트일 만한 공약마저 내놓질 않는다. 호남의 선 택, 전략적 투표, 캐스팅 보트 운운했지만 선거 막판에 이른 지금 호남은, 광주는 별 변수가 되어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번 조기 대선이 '촛불 혁명'의 성과라고도 말한다. 그러나 혁명 (revolution)은 리볼버(revolver) 권총의 탄창처럼 돌고 도는 것. 다만 부와 엘리트의 교체가 일어날 뿐이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교체한다는 혁명적 쾌감은 이미 탄핵과 대통령 구속으로 지나간일이 됐다. 정권이 바뀐다고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 믿는 사람은 소수다.

오랜 소외 속에 살아 온 호남인들에겐 "우리 지역도 여당 한번 해 보자"는 바람이 있다. 그 바람 뒤에는 "표 안 찍어 줬다간 또 핍박받을 게 아니냐"는 두려움도 있다. 비극이다. 제발 새 대통령은 득표지도를 펴 놓고 꽁하지 말기를 바란다. 득표율과 상관없이 한반도 동서쪽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 몰표를 안 줬다간 보복당할지도 모른다는,이 처참한 걱정이 사실이 되게 하지 말길바란다.

#### 5·18 37주년 릴레이 기고

### 촛불로 있는 오월



오 용 운 다른 세상 새로운 전남 건설운동본부 준비위원회 집행위원장

지난가을 겨울을 거쳐 봄까지 우리 국민은 작은 촛불 하나를 들고 거리에 섰다. 말 그대로 남녀노소가 거리를 메웠다. 평소 같았으면 차 막힌다 투정했을 그 거리, 시위 행렬에 기꺼이 나 한 사람 더하기를 주저치 않았고 추위와 눈비 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말 저녁이면 거리에 서서 같은 마음으로 촛불을 들었다. '이게나라냐' 절규하던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이런 나라를 아이들에게 물려주면 안 된다는 한마음이었으리라. 이제와는 다른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람이었으리라.

그리고 마침내 유신 공주, 독재자는 파 면되고 감옥에 갔다. 촛불혁명으로, 국민

# 바람에 지는 풀잎으로 오월을 노래하지 말아라

의 힘으로 연인원 1700만 명이 4개월 동안 집회를 해서 마침내 박근혜를 몰아내고 봄을 맞았다. 그리고 다시 오월,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대선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오월을 맞이하고 있다.

5월이면 광주는 자신도 채 아물지 않은 상처를 않고서 기꺼이 우리 사회의 아픔 과 시름을 품어왔다. 재작년에는 세월호 아이들과 가족들을, 작년에는 백남기 농 민과 가족들을 광주는 그 너른 품으로 안 고서 함께 울었다. 올해는 그 누가 광주의 품에 안겨 서러운 울음을 흘리게 될까? 세월호가, 백남기 농민이 광주의 품에서 위안받을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한 한 가 지는 그 어느 것도 달라진 것은 없다는 점 이다.

국가공권력에 의해 살해된 백남기 농민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요원하기만 하다. 3년이 지났지만 세월호가 왜침몰하고 우리들의 꽃다운 아이들이 죽어갈 때 왜 구하지 않았는지 묻는 가족들과 국민의 피맺힌 물음에 답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를 파면시킨 오월에도 그렇다.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구속된 국 정공백에도 사드는 배치 강행되고 우리 나라 경찰들이 우리네 할머니들을 짐승처럼 끌어내고 그것을 보며 비릿한 웃음을 보이는 미군을 보면서 느끼는 비참함은 37년 전 광주와 오늘이 무엇이 달라졌는지 가슴을 답답하게 짓누른다. 촛불혁명으로 박근혜를 감옥으로 보낸 오월에도 그렇다.

엊그제 5월 1일 노동절에도 노동자들이 죽는 나라, 쌀값이 20년 전 30년 전 가격으로 떨어졌는데 농민들을 위한 대책은 하나 없으면서 오히려 선 지급한 돈마저 토해내라는 나라, '공부는 해서 뭐하느냐' 울부짖던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는 달라졌다고 열심히 공부하면 노력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는 공정한 나라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아직은 할 수 없다. 독재자를 몰아내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오월에도 그렇다.

이제 곧 누군가가 대통령이 될 것이지 만 누가 된들(물론 다들 본인이 촛불 후 보임을 자처하고 있기는 하다) 1700만 명 이 바라던 대한민국을 그려갈 수 있을까? 온 나라가 촛불로 뒤덮인 그때에도 백남 기 농민문제, 세월호 문제, 사드배치 무 효, 한일위안부 합의 무효 같은 촛불 우선 과제 중 어느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정치 권에, 박근혜가 물러가고, 정권이 바뀌면 저절로 달라지리라 믿을 수는 없는 일이 다. 아마도 대선이 끝나면 다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이 이루어지고 개헌 운운하는 정치놀음에 밥그릇 싸움 에 촛불의 명령 따위는 이내 묻혀버리고 또 외면당하게 되리라. 그래서 2017년의 오월은 아직 답답하다.

'바람에 지는 풀잎으로 오월을 노래하지 말아라' 오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시인 김남주의 시구다. 시인은 오월 광주 의 참혹하고 치열했던 참상을 시로 옮기 면서 바람과 풀잎은 오월과 어울리지 않 는다며 서정적으로 오월을 노래하지 말 라 했다. 문득 이 시가 항쟁 37년 지난 오 늘, 촛불시민혁명으로 박근혜와 범죄자 들을 감옥으로 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 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이 담긴 소위 장미 대선을 치르고 있는 오늘 절절하게 맺히 는것은 나만의 착각일까?

5월 9일 제대로 투표하고 아직은 촛불을 끄지 말아야 할 이유다.

※다른 세상 새로운 전남 건설운동본 부 준비위원회는 박근혜정권 퇴진 전남 운동본부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 社 說

## '암흑의 일주일'…가짜 뉴스에 속지 말고

대통령 선거 6일 전인 어제부터 시행 되는 여론조사는 결과 발표가 금지됨 에 따라 이제 어느 후보가 앞서는지 정 확하게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선 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른바 블랙 아웃이라고 불리는 '여론조사 공표금 지' 기간이 선거일까지 이어져 여론의 추세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것이 다. 이에 따라 각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는 '암흑의 일주일' 동안 효과적인 유 세를 통해 승리하기 위한 저마다의 전 략을 세우고 막바지 표심 잡기에 총력 을 다하고 있다.

문제는 허위 여론조사 등 가짜 뉴스를 통해서 막판 지지율이 요동칠 수 있다는 점과 잘못된 정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널리 퍼짐으로써 유권자들에게 혼선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후보들에 대한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모 후보의 지지율이 다른 후보의 지지율을 앞서 판세가 뒤집혔다"는 식의 조작된 여론조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

마구잡이로 유포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에는 안철수 후보의 딸 설회 씨가 우리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의혹 이 다른 후보 측에서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엊그제 설희 씨가 부모님의 29 번째 결혼기념일에 보내는 영상편지가 공개됨으로써 의혹을 제기했던 이들을 머쓱하게 만들기도 했다.

가짜 뉴스는 언론사 기사 형식으로 포장돼 있어 속아 넘어가기 쉽다. 선관 위는 전문가 20여 명을 동원해 가짜 뉴 스를 색출하고 있지만 하루 수십억 건 씩 쏟아지는 SNS 게시 글을 빈틈없이 모니터하는 건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민도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미심쩍은 정보를 퍼 날라서도 안된다.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이번 대선은 짧은 기간에 이뤄지는 만큼 어떤 이변이 일어날지 모른다.가짜 뉴스가 대선 결과를 왜곡시키는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 오늘 · 내일 놀러가더라도 사전투표 꼭 하고

제19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5·9 대선의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들에 걸쳐 실시된다. 광주 전남의 경우오는 9일 치러지는 대선에 투표할 수없는 유권자는 4일과 5일 이틀간 오전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광주(95곳)와 전남(297곳)지역에 설치된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전남지역 사전투표소 297곳 중 247곳은 1층이며 2층 이상 50곳은 승강기가설치된 장소로 정하는 등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에 대한 투표소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했다.

총선에서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적은 있지만 대선에서 사전투표가 치러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전투표는 별 도 신고 없이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 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하러 갈 땐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국가유 공자증·학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하 고 사진이 첩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사전 투 표소는 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 후 확인하는 방 법 등이 있다.

사전투표율은 대선일(9일)의 전체 투표율과 대선 판세를 읽을 수 있는 척 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각 당의 후보들이 저마다 다양한 공약을 내걸고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것 도 그런 이유에서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국가적 불행을 끝내기 위해 치르는 조기 대선이다. 게다가 대의민주주의는 국민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전투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투표는 민주 시민사회의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책무이자 권리이 다. 혹여 연휴 기간 동안 여행이나 나들 이를 가더라도 사전투표를 통해 소중 한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투표 참여 없 이 더 나은 미래를 기약할 수는 없다.

#### 無等鼓・

'언더스터디'

지난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공연된 광주시립발레단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다양한 안무와 세련된 무대연출로 박수갈채를 받았다. 개인적으로는 공연 10여일 전발레단 연습실에서만난 풍경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 로미오와 줄리엣역을 맡은 주연 무용수들은 사랑 때문에 죽음에 이르고 마는 커플을 몸짓으로 표현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마지막 죽음 장면에서의 절절한 감정 연기는 절정이었다.

연습실 중앙에서 주 역들이 연기하는 동안 한쪽에서 또 한 명의 줄리엣이 똑같은 동작

을 연습하는 모습이 보였다. 두 사람이 2인무를 출 때 그녀는 홀로 로미오를 상상하며 춤을 췄다. 그녀는 줄리엣의 '언더 스터디'(대역배우)였다.

언더스터디(Understudy)는 평상시에는 다른 배역을 연기하다가 주·조연급 배우가 부득이한 상황으로 무대에설 수 없을 때 투입되는 이를 말한다. 오페라·뮤지컬의 경우 최대한 주·조연배우와 비슷한 이미지와 음역대, 음색,연기 톤 등을 고려해 발탁한다.

홀로 땀 흘리며 춤을 추던 그녀를 보면 서 묵묵히 뒤를 받쳐 주는 이들이 있어 결국 작품이 완성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본 공연에서 앙상블로 출연했다.

언더스터디를 하다 성공한 사례도 있다. 드라마 '용팔이', '굿닥터'로 사랑받은 주원은 원래 뮤지컬 배우로 출발했다.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의 언더스터디였던 그는 주인공이 부상을 당하면서 주역을 맡았고 스타가 됐다. 영화 '동주'의 강하늘도 뮤지컬 '쓰릴미'의 언더스터디를 맡다 주역으로 발탁됐다. 또 세계 3대 발레단으로 꼽히는 파리오

페라발레단에서 주역 까지 오른 발레리나 박세은은 '라 수르스' 언더스터디로 출발해

결국 똑같은 작품의 주인공을 맡았다. 물론 '언더스터디' 모두에게 기회가 오는 건 아니다. 하지만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을 믿으며, 때론 그런 기대가 없더 라도 뒤에서 조용히 힘을 보태는 사람

들이 있기에 우리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며칠 후면 대통령 선거일이다. 새로운 대통령이 만들어 갈 세상은 자신의자리에서 빛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

아도, 묵묵히 역할을 해 내는 이들이

행복해지는 사회였으면 좋겠다.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

#### 光则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의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